



주 제:	“봉헌 ”	“연중 제 32 주일 ”	2009년 11월 8일
복음 묵상:	[마르 12,38-44]	[1 열왕 17,10-16]	[히브 9,24-28]

‘거금의 봉헌금보다 예수님으로부터 더 크게 칭찬받을 봉헌이 있습니다. 내 시간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그리고 이웃들에게.

수표 한 장 보다 더 소중한 봉헌이 있습니다. 힘겨워하는 이웃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일입니다.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를 통해, 힘을 솟아나게 하는 칭찬 한마디를 통해, 기쁨을 주는 격려의 말 한마디를 통해.

하느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봉헌이 있습니다. 이 시대 또 다른 하느님의 얼굴인 고통 받는 이웃들을 찾아가는 일입니다. 그들에게 하느님께서 베푸셔야 할 위로를 대신 베푸는 행위야말로 예수님으로부터 극찬 받을 봉헌입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행위는 우리 인간들 안에 새겨진 하느님의 본성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어준은 필수과목입니다. 아무것도 내어놓지 않고 모든 것을 무조건 꼭 움켜쥐고 있는 것, 죽었다 깨어나도 나누는 법 한번 없이 사는 것은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내는 봉헌금의 단위는 아주 다양합니다. 봉헌금 정리하는 분들이 깜짝 놀랄 정도의 고액환 수표를 봉헌하시는 분 있는가 하면, 천주교가 천원권의 고향인줄 아시는지 죽어도 천 원짜리만 봉헌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느님의 어린양께서 배춧잎 좋아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는지 꼬박꼬박 만 원짜리를 봉헌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떼구르르’ 소리가 다 들리는 동전을 봉헌하는 분도 계십니다.

봉헌금의 액수가 커야 된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봉헌금의 액수가 살림의 형편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텅 빈 제 두 손을 바라보며 이 텅 빈 두 손조차 하느님께 봉헌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봉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정성입니다.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실 중에서 가장 값진 것, 내 인생, 내 젊음, 내 삶 전체를 하느님께 바친다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성의한 봉헌, 마지못한 봉헌, 습관적인 봉헌, 의무감에 의한 봉헌이 아니라 자발적인 봉헌, 잘 준비된 봉헌, 정성스런 봉헌, 사랑이 담긴 봉헌이야말로 하느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봉헌입니다.
(살레시오회 수도원장 양승국 스테파노 신부님 강론에서)

가족 동정 및 기도 요청

- 정상준 마이클 형제님 2 주간의 여정으로 한국을 편안히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신 모든 가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신행주 요세피나 자매님이 건강이 좋지 못해 앞으로 한달 정도 미사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건강을 빨리 회복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비의 손길을 청해 주십시오.
- 김순덕 까리따스 자매님이 투병중에 있습니다. 건강하게 돌아오시도록 기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성가대 임원회의 : 금주 오후 성가 연습후에 임원회의를 할 예정이오니, 모든 임원들은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령성월 표지 미사 및 위령성월 합동 연도

- 위령성월 표지 미사: 11/7 (일) 오전 11시 . 장소: Gate of Heaven
- 합동 위령성월 연소 : 11/15 (일) 교중 미사 후 장소: 본당

송영오 베네딕도 신부님 특강: 11/18(수) 7:30 pm 성당. 주제 “가정은 구원으로 가는 길”

한인들을 위한 신앙 강좌

- 11/21(토)10:00AM-3:45 PM: 강사: 이관배 스테파노 신부님, 박 소피아 수녀님과 송영오 베네딕도 신부님
장소 : Santa Clara Convention Center
5001 Great America Parkway, Santa Clara, CA

+ 복음 [마르 12,38-44]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기다란 예복을 걸치고 나다니며 장터에서 인사 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를 찾으며 잔칫집에 가면 제일 윗자리에 앉으려 한다. 또한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 먹으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오래 한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그만큼 더 엄한 벌을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헌금궤 맞은편에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궤에 돈을 넣는 것을 바라보고 계셨다. 그 때 부자들은 여럿이 와서 많은 돈을 넣었는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겨우 뿔돈 두 개를 넣었다. 이것은 동전 한 닢 값어치의 돈이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돈을 헌금궤에 넣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구차하면서도 있는 것을 다 털어 넣었으니 생활비를 모두 바친 셈이다."



♡"가정에 관한 격언"♡

- 탈 무 드 중에서 -



부부가 진정으로 사랑할때는 칼날처럼 좁은
침대에서도 함께 잘 수 있다,
그러나 사이가 좋지 않을 때는
폭이 16 미터나 되는 넓은 침대일지라도 비좁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좋은 아내를
맞이한 남자이다,

아내를 이유 없이 괴롭히지 말라,
하느님은 그녀의 눈물방울을 세고 계신다,

모든 병 중에서 마음의 병만큼 고통스러운 것은 없고
모든 악 중에서 악처만큼 나쁜 것은 없다,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은
젊었을 때 결혼해서 함께 살아온 늙은 아내이다

어린이는 엄하게 가르쳐야 하지만
두려워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자식을 꾸짖을 때는 따끔하게 꾸짖되
꾸짖음을 계속 반복해서는 안 된다,

자식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아이에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

오늘의 말씀 사랑;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1 코린 16,14)."